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6호 【루계 제2714호】

주체111(2022)년 9월 3일 토요일 음력 8월 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잊을수 없는 8월에 새겨진 진리

8월은 지나갔다.

허나 공화국의 인민과 군인들의 뇌리에 8월은 지울수 없는 뜻깊은 한달로 새겨져있다.

누구나 눈물로 말하고 눈물로 격정을 나누었으며 눈물속에 목청껏 만세를 부르지 않았던가.

말과 글로는 절세위인의 위민헌신의 세계를 다 표현할수 없기에, 그 고마움과 은덕을 노래할수 없기에 인간감정의 가장 진실한 언어인 눈물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자애로운 어버이께 감사의 큰절을 삼가 드리였다.

한방울 또 한방울…

그 수천만개의 눈물방울들에 비낀 8월의 날과 날들은 세월이 간대도 영원히 간직할 강렬한 사랑과 크나큰 격정의 시간들이였다.

인민을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이의 사랑넘친 음성으로 꽉 차있는 불멸의 8월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위대한 사랑이 안아올린 기적중의 기적

지난 8월 10일 공화국에서 진행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세계 1만 2천여개의 언론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에 세계 수십억인구가 귀를 기울였다. 처음 들을수 있는 연설이고 다른 국가수반들에게서는 들을수 없는 감동적인 연설이다.》

《**김정은**령도자가 지닌 고결한 인민사랑은 언어와 풍습, 정견과 신앙을 뛰여넘어 전인류에게 전달되는 가장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다.》

진정 그러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세계를 크나큰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한것은 거기에 담겨진 열화같은 인민사랑때문이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악성비루스로 하여 무서운 재앙속에 빠져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루스가 각일각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의 생사를 판가름하며 덮쳐들고있다.

우리 공화국에도 지난 5월 돌발적인 전염병확산으로 국가최대비상방역위기사태가 발령되였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누가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서시여 인민을 지켜주시였는가.

그이는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 어느 나라 지도자들도 막을수 없었던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대재앙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처물리치시고 공화국을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드시였다.

이 기적의 근저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있는가를 승리의 연단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누구나 알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였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다고, 그것은 나에게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았다고 하시며 당에 대한 진함없는 충심,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웃으며 헤쳐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오직 우리 당만을 바라보며 굳세게 떨쳐일어난 고마운 인민이라고 한없는 정을 담아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런분이시기에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련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들을 소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 백, 천, 만가지에 이르는 대책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시였으며 불철주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비롯한 방역전장들을 찾으시여 명철한 방략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엄혹했던 91일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고열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시지 못하시고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되는 나라의 방역사업과 관련한 령도문건을 지도해주신 사실, 그리고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깃들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몸소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신 가슴뜨거운 화폭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의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라는것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게 한다.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하시며 자신의 운명을 걸고, 목숨까지 내걸고 지켜주시는 이런 어버이가 계시기에, 이런 령도자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공화국에 조성되였던 안위존망의 사태가 평정되고 인민의 안녕과 평온, 아이들의 건강과 웃음이 지켜졌으며 이번 방역대전은 승리적으로 결속되게 되였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인민의 믿음과 고무격려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며 이런 훌륭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대고 분투하고 또 분투해나가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행성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민들이 있지만 이렇듯 인민을 자신의 목숨처럼 간주하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심신을 깡그리 바치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공화국의 인민과 같은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또 있는가.

공화국의 91일간의 최대비상방역대전은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사랑이 지켜주는 인민은 그 어떤 죽음의 고비와 만난시련을 이겨내는 불가항력의 힘을 지니고 위대한 기적과 승리만을 창조하는 복받은 인민, 영웅적인민이라는것을 온 세계앞에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생의 제일가는 재부

이번 방역전쟁은 특별명령으로 시작되고 특별명령으로 결속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15일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이 하달되였다.

그때로부터 시안의 약국들에 전투진지를 옮긴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24시간 인민들의 생명을 지켜 싸웠다.

수도의 약국들에 파견된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받은 명령은 약품수송과 공급을 안정시키는것이였지만 인민들의 생명수호와 건강보호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어느 누구라 할것없이 련일 계속되는 철야근무로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및 심리적피로가 극도에 달한 속에서도 약품이 필요한 세대들을 찾아 폭염속을 달리고 장악된 유열자들이 깨끗이 병을 털어버릴 때까지 찾고 또 찾으며 정성을 다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였다.

전염병치료약뿐 아니라 건강회복에 좋은 보약을 구해가지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공로자들의 가정을 찾은 소행, 사경에 처한 환자소생을 위해 자기의 피를 수혈하고 자기 입으로 막힌 숨길을 열어준 소행, 공급된 전투식량을 서슴없이 덜어내고 부모들이 보내준 현금을 아낌없이 털어 어려운 세대들에 주부식물을 나누어준 소행을 비롯하여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인민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치였다.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중에는 가정의 불상사와 위태로운 부모처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아픔과 고충을 신성한 사명감으로 참아 이겨내면서 수도시민들에게 정을 쏟아부은 전투원들이 있는가 하면 신병으로 고생하면서도 헌신의 길을 멈춤없이 걷다가 희생된 지휘관, 대원들도 있다.

이러한 소행들은 명령에 대한 복종감으로는 도저히 발휘할수도, 기대할수도 없는 미거로서 오직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것을 제일사명으로 간직한 공화국의 인민군대에서만 있을수 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였다.

그뿐이 아니다.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소박한 성의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고 귀대명령을 받고는 시민들에게 페를 끼치지 않자고 공식적인 환송의식도 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 조용히 수도의 거리를 떠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전에서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한 군의부문 전투원들의 미풍을 억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위훈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다시한번 크게 평가해주고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기 위해 또다시 특별명령을 내리시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시였으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충만된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또한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빛나는 공훈을 세운 전투원들이 앞으로도 우리 인민이 마음놓고 무병무탈하게 사는 귀중한 보금자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지켜가는 유능한 야전군의, 야전명의로 훌륭한 자욱을 계속 새겨갈것을 바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수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완수한 인민군대 군의부문 전투원들은 평범한 자신들을 오늘의 화선군의, 전투영웅들로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시며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격정의 눈물을 쏟고쏟았다.

미증유의 대동란속에서 운명적인 국난을 한몸에 걸머지시고 비범한 예지와 초인간적인 정력, 탁월한 령도로 준엄한 방역전쟁을 대승에로 향도하시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만고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시고도 그 모든 영예를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런 불세출의 대성인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을 생의 제일가는 재부로 간직한 군대는 령도자와 운명의 피줄을 잇고 그 어떤 시련과 곡경도 이겨내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을 떨치게 된다.

절세의 위인이시며 사랑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공화국의 인민군대야말로 무적필승의 최강군이다.

* *

정녕 자연의 힘으로 뜨거웠던 8월이 아니였다.

천만군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렬한 사랑속에 흘러온 시간들이여서 열화같이 뜨거운 날들이였다.

그 위대한 사랑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만을 떨치게 하는 힘과 기적의 원천이다.

공화국이 무엇으로 강대하고 무엇으로 그 어떤 화난도 박차고 승리의 직선주로만을 달리고있는가를 불멸의 8월은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조국소식

강계시에 종합적인 약국이 새로 건설되였다

자강도에서 강계시에 종합적인 약국을 새로 일떠세웠다.

도에서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표준으로 될 약국을 시범적으로 꾸리고 모든 시, 군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작성과 임무분담을 명백히 한데 기초하여 공사조직사업을 심화시켰다.

또한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종합약국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협의대책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적극 따라세웠다.

환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진찰과 처방을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의약품들의 용도와 사용방법을 정확히 알려줄수 있도록 전문가자격을 지닌 보건일군들을 선발배치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었다.

선편리,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설계가 최단기간에 완성된데 맞게 일군들은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선행시켜 건설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약국을 마련해줄 일념안고 건설자들은 건축물과 요소들의 질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원만히 보장하면서 내외부시공을 특색있게 하였다.

약국주변에 수백㎡의 록지를 조성하고 야외휴식터를 꾸려놓았으며 불장식도 이채롭게 해놓았다.

약국에는 의약품취급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는 약품판매구역과 처방구역, 대기구역, 검사구역, 제조구역, 보관구역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성되였으며 의약품사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자료들도 전시되였다.

판매구역에는 고려약매대와 신약매대, 의료용소모품매대가 꾸려지고 처방구역에는 의사상담실, 대기실이, 검사구역에는 검사실, 분석실이, 제조구역과 보관구역에는 고려약제조실, 약품창고 등이 갖추어져있다.

본사기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

오늘 공화국은 후대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이 보장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공화국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료교육제도만 놓고보아도 후대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는 나라, 교과서와 참고서, 학용품들을 거저나 다름없는 매우 눅은 값으로 공급해주고 학생들의 교복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공화국밖에 없다.

심심산골과 외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있고 교육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토대와 교원양성기지들도 튼튼히 꾸려져있다.

공화국에서는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하고있다.

전국도처에 일떠선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정연한 고등교육체계와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공화국인민들은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하며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해나갈수 있는 인재들로 준비해나가고있다.

전민학습의 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전국도처에 일떠선 도서관, 회관을 비롯한 사회교육교양기관들을 통하여서도 인민들은 누구나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공화국이 현대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전민학습, 전민교육체계를 이미 수십년전에 정연하게 세워놓은것은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다.

주체101(2012)년 9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의 결정체이며 공화국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또 하나의 뚜렷한 실증이다.

최근 공화국이 첨단과학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적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에서 자라난 새세대 인재들의 대군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중핵으로 내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할 정책적과제는 나라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교육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주체교육의 비약적발전과 더불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강영진

이민위천의 리념이 꽃펴나는 내 조국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이 시각 공화국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빛나는 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고있다.

70여년전 공화국의 창건은 이 나라 인민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태양이 없는 화원을 생각할수 없듯이 공화국에 펼쳐진 인민의 락원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따사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일찌기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고 실현해본적도 없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이 땅우에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고 쓰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이민위천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서 제일로 중시하신것이 바로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국가와 정권을 세우고 법을 채택하는것이였다.

조선예술영화 《잊을수 없는 나날에》의 장면들에는 이런 장면도 있다.

해방된 그해 당창건을 놓고 각 도당책임자들의 협의회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도하시였다.

회의참가자들이 정치로선문제를 놓고 사회주의로 나가야 하는가 민주주의길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락후한 농업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농민들의 념원이 땅을 가지는것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념원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당의 로선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정해주시였다.

이렇듯 건당, 건국의 첫 기슭에서부터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여도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첫자리에 놓으시였기에 해방후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여 농민들의 세기적소원을 풀어주시였고 련이어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들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선의 헌법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담아 작성하도록 하시였다.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헌법을 작성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을 몇번이고 검토, 가필하시고도 광범한 대중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려 70여일동안이나 전인민적토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의 첫 헌법에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던 1970년대에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전적으로 맡아키울데 대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법과 정책들을 채택실시하도록 하시여 공화국을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주시였다.

참으로 공화국의 모든 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될수 있은것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소박한 이야기도 귀담아들어주시며 그것을 정책에 담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의 위대한 스승이라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 정객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운 자리에서 이런 물음을 제기한적이 있다.

《어디에 가든지 〈이 언제는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일떠선것입니다.〉라든가 〈이 과수원은 전쟁을 하고있을 때 수령님께서 전쟁이 끝나면 과수원을 만들자고 교시하시고 또 지도해주셨기때문에 생긴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것이 〈**김일성**주석님의 지도〉로 되였다고 하는데 주석님께서는 언제 그런 전문기술들을 공부하셨습니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농민들이 나를 보고 여기는 조건이 좋으니까 과일이 잘 자란다고 가르쳐주고 건설부문 일군들은 여기에 언제를 쌓으면 물이 고여 관개용수로 쓸수 있다고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나는 가서 보고 결정했을뿐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이였다. 공화국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사업하시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즐거운 휴식으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느 일요일인가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념려하여 하루만이라도 쉬실것을 말씀올렸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이나 농촌을 돌아보는것보다 좋은 휴식이 어디 있겠는가고 하시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고심하던 문제를 풀수 있는 고리를 찾아내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포착할 때처럼 기쁜 일은 없다고, 이것도 다 자신에게는 휴식이라고, 그러니 따로 무슨 휴식이 필요하겠는가고 헌헌히 교시하시였다.

인민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박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졌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인민이 기뻐할 때 제일 기뻐하시고 인민의 행복속에 더없는 보람을 찾으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고생도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

어느해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숙영지에서 저녁식사를 하신적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인민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아직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지 못하고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밤잠도 오지 않고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던 그이께서 문득 말씀을 멈추시였다. 쪽잠에 드신것이였다.

순간 그 자리에 숭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것도 불과 몇분간이였다.

동무들 미안하오, 온종일 다녔더니 너무 곤하여 잠간 졸았소, 나는 이제 또 몇개의 공장들과 인민군부대들을 보기 위해 떠나야 하오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는것이였다.

이렇듯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깡그리 바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을 찾아 끝없이 이어가신 그이의 헌신의 로고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축산기지들, 경공업기지들, 과수농장들이 일떠섰을뿐 아니라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인민봉사기지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지고 만수대거리의 살림집과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어찌 그뿐인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또 한분의 위인을 모시고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확고한 결심을 안으시고 모든 국가활동과 정책들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데로 지향시키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하신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가셔주는것을 국가의 최중대사업으로 내세우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하여 인민이 불행을 당했을 때에는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여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선경마을,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였고 공화국경내에 악성전염병이 류입되였을 때에는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취해주시여 그토록 짧은 기간에 최대비상방역전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최대비상방역전이 벌어진 지난 90여일간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방역대전을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세계보건사에 특기할 기적이 창조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은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고 빛내여주신 인민의 영원한 어버이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공화국을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으로 일떠세우시는 인민의 태양이시다.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그 사랑에 고무되여 하나로 더욱 뭉쳐진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는 머지않아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락원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빛나는 아침의 나라

맑고 푸른 9월의 하늘가에 노래가 울려퍼진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부르고부르는 《애국가》!

노래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볼수록 참으로 생각도 깊어지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워온 조선.

허나 오늘날 공화국인민이 한없는 자긍심에 넘쳐 소리높이 자랑하는 빛나는 아침의 나라는 결코 아침해를 남먼저 맞이하는 나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탓에 지난 세기초엽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삼천리강토는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화하였고 나중에는 일제의 군화발밑에 짓밟혀 온 겨레가 수십년동안 짐승만도 못한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 아침해는 변함없이 떠올랐건만 겨레는 칠칠암흑속에서 비참한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러던 이 땅에 진정한 아침이 밝아온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전을 벌리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그날부터였다.

그때부터 나라의 주인이 된 이 땅의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새 조국건설의 가슴벅찬 새 아침을 맞이하였고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쳐부시고 전승의 빛나는 아침을 떠올렸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기상을 과시하며 자랑찬 승리의 아침들을 련이어 안아올리였다.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려정을 더듬어볼수록 온 나라 인민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든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이 조국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이실 결심 굳히시며 대동강의 장쾌한 해돋이를 맞이하는 자신의 마음속진정을 담아 즉흥시를 읊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

…
오늘은 대동강 해돋이 맞고
래일은 공산주의 해맞이하자
혁명의 길 이어 세상 끝까지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리라

그날의 맹세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 한평생 얼마나 많고많은 험산준령을 넘고 넘으시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시였던가.

형언할수 없는 아픔을 가슴속깊이 묻어두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길에서 떠오르는 아침해를 제일먼저 맞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을 더욱 빛내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의 빛나는 아침을 안아오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헌신의 한생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땅에 밝아오는 아침들은 또 그 얼마나 환희롭고 격정넘치는것인가.

경애하는 그이따라 넘고 헤쳐온 지난 10년려정이 가슴뿌듯이 되새겨진다.

그 나날 세상을 놀래우며 나라의 곳곳에 무수히 일떠선 인민사랑의 보금자리, 천지개벽의 창조물들과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부흥강국의 실체들은 그 얼마인가.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싣고, 주체조선의 위용을 과시하며 얼마나 많은 주체탄들이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만리창공으로 날아올랐던가.

올해에만도 영웅조선의 절대적힘을 과시하며 세계최대급의 절대병기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싸일이 우렁찬 뢰성을 터치였고 평양의 화성지구에 새로운 인민의 리상거리가 일떠서고있으며 함경남도인민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게 될 대규모 련포온실농장건설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돌발적으로 들이닥친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이겨내고 세계보건사에 전례없는 기적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시여 이 땅엔 세인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 사회주의락원의 찬란한 아침노을이 붉게 피여오르고있다.

하기에 온 나라 인민들은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을 들먹이고있고 사랑하는 우리 조선을 온 누리에 끝없이 빛내여갈 드높은 맹세와 각오로 더운 피를 끓이고있다.

절세위인들을 대대로 높이 모시여 조선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빛나는 아침의 나라로 존엄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령도의 천재

방역대전에서의 승리를 안아온 탁월한 령도

지난 8월 10일 공화국은 령내에 류입되였던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정책들을 실시하시여 방역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악성비루스가 발생하였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통찰력으로 미구에 인류가 겪게 될 무서운 고통과 불행을 내다보시고 초기부터 물샐틈없는 초특급비상방역장벽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방어적대책에서의 철저한 조직성과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인 방역형세를 유지하도록 하시였다.

특히 지난 5월 돌발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90여일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방역대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맞게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도록 하시고 전염병발생상황관리와 전파근원차단, 인민생활안정을 비롯하여 최중대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도록 하시였다.

오늘의 방역대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시행하는 인민적인 방역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역별차단봉쇄와 단위별격폐조치가 강력히 실시되였으며 전주민집중검병검진을 엄격히 진행하여 유열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격리시켜 치료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였다.

방역대전의 하루하루는 준엄했지만 온 나라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이 땅에선 눈물없인 들을수 없는 사랑의 날과 날들이 흐르고 흘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정치국 협의회, 정치국 비상협의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 등 중요당회의들을 련이어 소집하시고 돌발적인 방역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방도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또한 몸소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으시여 짧은 기간에 방역에서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해주시였고 평양시내의 약국들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가정에서 마련하신 의약품들을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황남도안의 인민들에게 보내주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빨리 인민들을 악성병마의 위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국가예비약품을 해제하여 전국에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긴급추진하도록 하시고 모든 유열자들에게 필요한 약품이 빨리 가닿을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고 그들이 인민사수의 전방에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공화국특유의 덕과 정을 그 어떤 최신의학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로 보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공산주의미덕과 미풍을 더 높이 발양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참으로 공화국에서 이번에 거둔 비상방역전에서의 기적적승리는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정책들을 실시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이번 비상방역전선에서 승리한 그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김금화

단상

수자 《0》에 대한 생각

이 땅을 휩쓸었던 미증유의 보건위기가 승리적으로 평정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또다시 생활의 따뜻한 평온과 웃음이 피여난지도 수십일이 흘러갔다.

허나 오늘도 나는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의 높은 연단에 오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크나큰 격정과 자신심에 넘치시여 91일간의 최대비상방역전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시던 그날의 격정의 순간을 잊을수가 없다.

91일간!

실로 공화국의 장구한 려정에서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수자이다.

그 짧은 력사의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눈물겨운 격난의 대동란을 겪어야 했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어야 하였으며 또 얼마나 위대한 힘의 분출로 환희와 격동의 오늘을 맞이하였던가.

유열자수 0.

치료중 환자수 0.

세계의 유일무이한 비루스청결지역의 탄생.

의미해볼수록 그 어떤 《수학》량도 없음을 나타내거나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를 비겨 이르는 《0》이라는 수자의 의미가 오늘날 이렇듯 소중하게만 안겨질줄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다.

나에게는 수자 《0》이 빈 공백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눈물겹도록 뜨겁고 가슴부풀도록 숭고한 그 무엇의 충만으로 여겨진다.

우리의 위대한 어버이의 무한대한 헌신과 고생의 크기, 우리 원수님의 전설적위인상의 아득한 높이, 공기처럼 차흐르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의 열도, 최대의 방역위기를 극복하며 보다 강해진 우리 힘의 세기가 반영된 위대한 수자이다.

이 땅에서 악성비루스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0%는 새로운 기적창조의 100%, 200%로 될것이다.

위대한 당의 백승의 령도따라 최대의 방역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 인민은 지금 위기를 발전도약의 기회로 반전시키고 보다 강해진 힘, 더욱 슬기롭고 용감한 기상을 안고 신심드높이 래일의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하고있다.

세계를 굽어보며 웅건하게 솟아오르는 화성전역의 창조물들과 풍요한 가을을 부르는 황남벌의 설레임소리, 농촌진흥의 경쾌한 기계화동음소리는 그 얼마나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을 흐뭇하게 해주는것인가.

다시금 생각을 거듭해본다.

수자 《0》에 또 다른 《0》을 붙이면 붙일수록 백, 천, 억으로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걸출한 수령을 높이 모신 우리 국가와 인민은 닥쳐든 그 어떤 역경도 시련도 《0》으로 만들어버리고 미래의 모든것을 앞당겨 반드시 승리할것이니 이 위대한 힘을 막을 힘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볼수록 우리에게는 수자 《0》에 대한 의미가 새라새롭게 안겨온다.

뜨겁게 새겨진다.

배남일

태양의 축복을 받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

9월 2일은 지금으로부터 22년전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은혜로운 조국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은 절세위인들께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돌려주신 하늘같은 은정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불같은 신념과 의지야말로 인생의 가장 귀중한것임을 뜨겁게 느끼고있다.

감격도 새로운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들이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기던 그날 온 나라가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고 온 세계가 또다시 충격속에 조선을 바라보았다.

과연 그 누가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나 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날한시에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한생을 바친 참된 혁명가, 투사들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모든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가 안아온 기적이였다.

주체89(2000)년 6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데려다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도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30~40년동안 지조를 지킨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전향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살이고통을 면할수 있었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어떤 유혹이나 강압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려오면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높이 내세우며 자랑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 열화같은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떠받들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함께 채택된 6.15북남공동선언에 비전향장기수문제와 관련한 조항이 큼직하게 설정되게 되였으며 조국의 품에 안기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앞길에 환영의 꽃바다가 펼쳐지고 그들모두가 평양에 와서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당의 품에 데려왔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이제는 그들이 청춘을 되찾아 여생을 아무런 불편이 없이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는것이 자신의 임무로 된다고 하시며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거듭거듭 안겨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서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지금껏 맞고보낸 무수한 날과 달들은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주는 사랑과 믿음의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녘의 감옥에서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누리지 못한 행복, 빼앗겼던 청춘을 되찾아주고싶은 어버이의 심정으로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이 새 가정을 이루는데까지 관심하시였으며 모진 고문과 박해의 후과로 질병을 앓고있는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공화국의 권위있는 병원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귀중한 보약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다.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 용감히 싸우고 혁명가의 지조를 지킨 그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려고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조국통일상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표창도 안겨주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어느 깊은 밤 겹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수십가지 보약과 지팽이까지 마련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희귀한 물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시고 민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라고 오곡까지 보내주신 다심한 사랑, 삼복철이면 몸보신에 좋다는 단고기도 맛보게 하시고 눈오는 겨울이면 털내의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보내주신 뜨거운 은정,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생일상도 보내주신 친어버이의 보살피심…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재생의 불사약이 되여 남쪽에서 짓밟혔던 그들의 육체에 청춘의 활력을 부어주었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던 비전향장기수가 귀여운 딸자식까지 보아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경사도 생겨났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을 떠나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한사람한사람 영생의 언덕인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여 그들의 삶을 조국이 알고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주시였다. 정녕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과 의리의 빛나는 결정체였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온 나라 인민들이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큰 상실의 아픔을 안으신 속에서도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고급어족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자신께서는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비전향장기수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휴양길과 료양길, 동해명승 송도원과 천하절승 금강산에로의 탐승길도 마련해주시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로당익장하여 값높은 삶을 누리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전국로병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는 최상최대의 영광도 누리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것은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우리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격동적인 화폭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비전향장기수들의 행복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이 있다.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여생을 깡그리 바쳐가겠다는것이 비전향장기수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맹세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이역의 동포상공인이 받아안은 영광

주체76(1987)년 7월 12일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총련의 일군들과 담화를 나누시다가 한 상공인의 기업활동정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는 사회주의조국건설에 귀중한 공헌을 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린 상공인이였다.

고향을 남조선에 둔 재일동포 1세인 그는 상기업을 하여 한푼두푼 돈을 모으면서도 그 돈을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극력 쓰지 않았다.

나라없던 지난날 같으면 어떻게 이역땅에서 이처럼 상기업을 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고 총련을 무어주시였기에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되였으며 장사도 할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 조국을 떠나 자기 한몸의 호강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그의 드팀없는 생활관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해 2월중순 그의 애국적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조국에 바친 지성도 지성이거니와 거기에 깃든 애국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다고, 그에 대한 표창사업을 크게 하여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그해의 태양절을 맞으며 그는 안해와 함께 조국에 와서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와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금시계를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양절이 지난 며칠후에는 그가 예순번째 생일을 쇠지 않았다는것을 아시고 그에게 생일상을 보내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고도 또다시 그에 대하여 생각하시며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은 가슴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뒤이어 평양의 중심부에 새로운 거리가 드디여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새로 건설된 거리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자고, 그에 대한 정령을 잘 써서 발표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넘치신 음성으로 지금까지 공장설비를 조국에 바친 재일상공인들에 대하여 공장에 그의 이름을 달아주고 비도 세워주었는데 앞으로 애국적인 상기업활동을 한 상공인들에게는 거리, 건물, 다리, 굴 등과 같은데 이름을 달아주고 비도 세워주어야 한다, 그러한 상공인들의 충실성을 평가해주고 그들속에서 애국심을 더 높이 발휘하도록 고무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세상에 총련상공인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녕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그들의 삶이 빛나고 영예로운것이 아니겠는가.

그날로부터 얼마후 조국의 신문과 방송들에서는 일제히 평양시에 새로 건설된 거리를 총련상공인의 이름으로 제정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당시)의 정령을 내보내였다.

한 동포상공인의 애국지성을 높이 내세워주고 그에게 모든 영예와 행복을 다 안겨주고싶으신 절세위인의 사랑은 이렇듯 끝이 없었다.

최진옥

윤석열호전집단은 이 땅에 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주범이다

—모험적인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을 두고—

윤석열호전집단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이 1일 막을 내리였다.

그러나 투입된 무력규모에 있어서나 침략적성격의 모험성, 실행한 전쟁각본에 있어서 극도로 위험천만하였던 이 전쟁연습의 화약내는 아직 가셔지지 않고있다.

남조선 전 지역에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각 군종, 병종의 야전부대들과 4 000여개의 공공기관, 48만여명의 민간인들까지 투입된 가운데 강행된 이번 북침전쟁연습은 철두철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은 극도로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이다.

극악무도한 《북주적론》의 실천행위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은 윤석열역적패당의 극단적인 반공화국적대감의 직접적산물이며 그 무모함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실증해주는 산증거이다.

정책의 본질과 성격은 실천행동에서 그대로 표현된다. 상대방을 적대시하지 않고 공격할 기도가 없다면 굳이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전쟁연습을 벌릴 필요도 리유도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새로 집권하기 바쁘게 《국정과제》에 《북정권과 인민군은 적》이라는 대결용어를 쪼아박고 우리 제도와 체제를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극히 무모한 적대시정책이 《국시》임을 숨기지 않았다.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멸살시키겠다는 《북주적론》이 북침론의 예고편이라면 《을지 프리덤 실드》는 그 실행편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7월중순 윤석열역도가 괴뢰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떠들며 《을지 프리덤 실드》연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라고 고아댄데 이어 괴뢰통일부에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립각한 통일》실현을 운운한것은 이번 합동전쟁연습이 무엇을 노리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대결의 길로 줄달음치며 역적패당이 떠들어대는 《힘에 의한 평화》는 곧 힘에 의한 대결이며 《실질적인 평화정착》은 전쟁을 통한 《제도전복》이라는것을 만천하에 명백히 확증하였다.

불의적인 기습공격을 노린 실전연습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극도로 위험천만한 실전연습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윤석열호전집단은 미국과의 《을지 프리덤 실드》연습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한사코 강변해나섰다.

《방어적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방패》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는가 하면 북침공격훈련에 조차 《역공격》, 《반격》이라는 패쪽을 붙여놓고 《정당방위성》을 부각시켜보려는 위장놀음을 구차스럽게 벌려놓기도 하였다.

장구한 인류전쟁사는 적대관계의 진영들사이에 벌어지는 군사연습들이 임의의 시각에 실제적인 전쟁으로 넘어간 사례들을 생생히 기록하고있으며 특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군사연습일수록 보다 위험하다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이번 연습이 《년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적들의 변명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가는 벌어진 사실들을 통해 잘 알수 있다.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의 전 과정과 적용된 전쟁각본들, 실행된 훈련내용만 보아도 철두철미 선제공격형의 실동연습이라는것이 명백하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괴뢰군의 전쟁준비태세인 《데프콘》이 한단계 격상된 속에 그 누구의 《도발》로 인한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숙달한다는 4일간의 위기관리연습으로부터 막을 올렸다.

기본단계의 연습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쟁을 가정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이 전시체계로 전환하고 공동으로 《북의 공격》을 격퇴하며 괴뢰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을 총동원시켜 《국가총력전》을 수행하는 1부 연습이 《방어》의 간판을 달고 벌어졌다.

특히 8월 29일부터는 《적》주력의 익측과 후방을 공격하여 개성축선을 따라 평양이남계선까지 진격한다는 2부 《반격》연습이 호전적광기를 띠고 강행되였다.

이번 연습은 《참수작전》과 《평양점령》, 《핵선제공격》계획이 포함된 악명높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였다는 점에서 더욱 간과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에 감행된 모든 야외실기동훈련들이 북침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벌어졌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괴뢰륙군 《수도》방위사령부, 륙군특수전사령부, 해군1함대사령부 공군16전투비행단을 비롯한 각 군종 괴뢰군무력들이 투입되여 련합특수전훈련, 련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 《쌍매》훈련 등 13개에 달하는 실동훈련들을 실전과 다름없이 진행하였다.

특히 《북수뇌부제거》, 《평양진격》을 작전임무로 하는 남조선미국련합사단이 창설이후 최대규모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윤석열역도가 《전시지휘소》라는데 나타나 마지막까지 실전적인 연습을 진행하라고 줴쳐대고 괴뢰국방부 장관 리종섭을 비롯한 호전광들도 즉각 대응태세니, 전시임무수행능력의 극대화니 하며 전쟁열을 고취한 사실은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의 무모성과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세계최대의 화약고로 공인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교전일방을 반대하여 해마다 선제타격을 가상한 실전연습을 벌리는것처럼 위험한 군사적도발은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과 함께 강행한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이고 선제적인 공격을 노린 실동작전, 무모한 예비전쟁이였다는것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예고해준 북침광기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전쟁연습은 윤석열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한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각일각 증대되고 정세악화는 피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직접적계기로 되였다.

력대 괴뢰통치배들가운데 윤석열역도처럼 전쟁연습에 집착하며 불장난을 즐기는 광신자는 일찌기 없었다.

집권하기 전부터 이전 괴뢰정부에서 축소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복원하겠다고 줴쳐댄 윤석열역도는 취임 보름만에 열린 남조선미국《정상회담》에서 상전으로부터 합동군사연습의 대폭확대를 약속받고 가장 큰 외교성과라고 광고해댔다.

련이은 미국상전과의 《국방장관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모의판들에 전쟁연습문제를 기본의제로 상정시키고 대규모에서 벌려놓는것으로 간청하여 확답을 받아냈다.

원래 윤석열역도가 괴뢰대통령실을 청와대가 아닌 괴뢰국방부청사에 전개한것자체가 집권 전기간 반공화국적대시와 북침도발을 일삼겠다는 로골적인 대북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윤석열역도가 취임한지 불과 두달만에 미국과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은 무려 19차로서 이전 리명박, 박근혜보수《정권》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에서 진행된 《한》미련합특수전훈련, 하와이에서 진행된 다국적미싸일경보훈련 《퍼시픽 드래곤》, 팜도주변해상에서 진행된 다국적련합해상훈련 《퍼시픽 뱅가드 2022》, 오스트랄리아에서 진행된 다국적대규모공중련합훈련 《2022 퍼치 블랙》을 포함하여 역적패당이 북침전쟁수법을 숙달하고 실전경험을 쌓기 위해 강행한 전쟁연습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최악의 통치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쟁불장난에 혈안이 되고있는 윤석열역도가 앞으로 집권 5년간 얼마나 많은 전쟁연습을 벌려놓을것이며 이것이 조선반도정세를 어떤 지경에로 몰아가겠는가 하는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한 북침전쟁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주곡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다.

벌써부터 윤석열역도는 다음해에 《확장억제》의 간판을 내걸고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전쟁살인장비들이 동원되는 남조선미국합동전쟁연습을 포함하여 각종 북침전쟁연습의 규모와 회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공언해대고있다.

조선반도에 전쟁연습의 화약내가 가셔질 날이 없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것이 기정사실로 되고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 전쟁난다.》고 한 내외의 우려가 현실로 립증되고있으며 역도의 집권이야말로 최악의 재난이라는 남조선민심의 평가는 백번 정당하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벙거지를 쓰고있는한 우리 민족이 언제 가도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수 없으며 정세는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는것이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결론이다.

* *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 전쟁을 몰아오는 주범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 환장이 된 윤석열역적패당은 우리 민족의 불변의 주적으로서 추호도 상대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철저히 박멸해치워야 할 재앙거리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땅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극악한 친미주구 윤석열호전집단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론평원

위선의 허물을 쓴 북침전쟁불장난

《모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의 어원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한 장사군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그 어떤 방패도 뚫을수 있는 창이요, 그 어떤 창도 막을수 있는 방패라고 광고해댔다.

그 말을 듣고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러보시오.》

이때부터 말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리치상 어긋나는것을 가리켜 《모순》이라고 표현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을지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떠들고있는 《방패》니, 《방어》니 하는 궤변들이 그러한 모순투성이의 넋두리들이다.

내외가 한결같이 지탄했듯이 이번 전쟁연습은 모험적인 북침작전계획에 따라 미군과 남조선군의 수많은 병력과 무장장비들이 동원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벌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였다.

실제로 남조선집권자인 윤석열역도는 전쟁연습이 한창이던 때에 어중이떠중이들을 끌고 지하갱도인 전시지휘소에 기여들어가 미국의 확장억제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형3축체계》능력을 조속히 구비하도록 전력증강을 가속화하며 《전략사령부》창설도 빨리 추진하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자도 확고한 《한》미련합방위태세의 유지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이 빈틈없이 리행되도록 공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느니, 굳건한 《한》미련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전시임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할수 있도록 노력하라느니 하고 고아댔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이나 《한국형3축체계》라는것이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공개된 사실일진대 《방패》라는 명칭이 과연 가당한가 하는것이다.

그야말로 《창》을 《방패》라고 하는 자가당착이 아닐수 없다.

전쟁연습기간 떠들어댄 《방어적연습》이라는 광고도 마찬가지이다.

《북주적론》과 《선제타격론》에 따라 벌리는 전쟁불장난이 어떻게 《방어》를 위한 군사훈련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죄 지은자가 발편잠을 못자고 제 그림자에도 놀란다고 항상 공화국을 침략할 불순한 흉심만 속통에 가득찬것들, 그 시꺼먼 심보때문에 어떤 보복이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과 공포로 분분초초를 보내는것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그러니 공화국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위협》으로 오도하고는 그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전쟁불장난을 그칠새없이 벌리고있는것이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는 격이다.

더욱 가관은 전쟁불장난을 벌리면서 《평화》를 위해서라고 떠들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날과 해를 이어가며 벌어지는 각종 합동군사연습, 단독연습들은 그의 불순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하나가 다 전쟁발발의 도화선들이다.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불장난이 어떻게 《평화》을 위한것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평화를 해치는 합동군사연습반대! 한미동맹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는것은 응당하다.

이처럼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벌이는 《방패》, 《방어》, 《평화》의 나발은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고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미국상전의 궤진 핵우산을 믿고 초강대국인 공화국과 맞서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스스로 재앙을 청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언어도단의 극치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최근 집권후 처음으로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은 역적패당은 《북인권》문제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가치중 하나라고 떠들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본격화할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지어 통일부 장관이라는자는 《탈북자》쓰레기단체와 《북인권》단체의 떨거지들을 만나 《북인권개선》나발을 고아대게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이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라는것은 세상에 이미 공인되여있다.

인민을 중심에 놓고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모든 정책들이 작성되고 집행되고있는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자연재해가 나도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주민들의 살림집부터 우선적으로 지어주는 나라,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는 나라,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위해주는 덕과 정이 넘치는 사회가 다름아닌 공화국이다.

이런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을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떠들며 흐려놓으려는것이야말로 정의와 진리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유린이다.

역적패당이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을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한사코 매달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저들내부의 반인륜적, 반인권적실상을 가리워보자는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지금 남조선의 인권상황은 말이 아니다.

사람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히고 어디서나 약육강식의 생존법칙과 패륜, 패덕만이 범람하고있다. 큰물로 무고한 인명들이 죽어나도 정치를 한다는 작자들이 얼굴에 웃음을 짓고 사진찍기를 하면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고 너덜거리는 판이다.

이렇게 남조선인민을 한갖 개, 돼지로 취급하고있는 반역패당이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역적패당이 제아무리 모지름을 써대야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극악한 동족대결광,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인권범죄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예로부터 입은 삐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했다.

역적패당은 있지도 않는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열을 올리기 전에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저들의 인권실태부터 돌아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더 좋기는 애당초 《북》이라는 말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는것이다.

겨레의 지향과 민심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이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날은 멀지 않았다.

정윤성

주도권쟁탈로 소란스러운 남조선정국

《그 식이 장식》이라는 말은 남조선정치판을 념두에 둔것같다.

새 당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고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이지만 정치판에 나서서는 전혀 새로운것이 없고 여전히 서로 진흙탕싸움에만 골몰하기때문이다.

지금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두 당사이의 드잡이를 보아도 그러하다.

지난 선거들에서 패한것으로 하여 한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의 정치적무능과 허점에 대한 민심의 높아가는 비난과 반발을 리용하여 《력대급무능정부》,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권》으로 몰아대면서 집권세력과의 공개적인 대결에 나섰다.

지난 8월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사무실이전과 관저개건공사를 둘러싼 의혹, 《대통령실사적채용》의혹, 폭우피해와 관련한 부실대응 등 역도의 통치무능행위들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집권세력을 압박해나섰다.

《국민의힘》것들은 그들대로 이전 《정권》시기의 사건들을 《3대안보문란사건》으로 엮어 《신북풍》몰이, 정치보복으로 대응하고있다.

타방의 허물들추기와 내부와해작전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석열파와 이전 당대표 리준석사이의 대결로 란장판으로 변한 여당의 실태를 까밝히면서 윤석열은 선거기간 리준석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거슬리게 놀아댔던 일만 기억하면서 당대표자리에서 쫓아냈다, 《윤핵관》들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비윤석열파들을 충동질하고있다.

가마가 솥을 보고 검둥아 한다더니 《국민의힘》것들은 제개비네 집안이 된 제 집안꼴은 당반에 얹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데 대해 아니꼬와하면서 《선거에서 련이어 패한 사람이 당대표직까지 거머쥔것을 보면 야당의 인물, 대안부재가 심각한 수준인것같다.》, 《부패의혹자에게 당의 운명을 거는것은 도박이다.》라고 훈시질을 한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처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것을 물고늘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역도의 처에 대한 《김건희특검법》을 내들고 공세를 가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이런 정치판을 두고 싸움판, 오물장이라고 비난단죄하고있는것은 응당하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 피터지는 정쟁만을 일삼는 위정자들의 추태가 얼마나 눈꼴사나우면 남조선 각계가 《정치공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외면경쟁 벌리는 여야》라며 침을 뱉겠는가.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정치시정배들사이의 진흙탕싸움은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는 《정치혐오층》을 증대시키고있는것이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이비정객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허정선

만화 《쟁탈전》

만필 롱산주점의 특산 석열탕과 건회

알고계십니까.

롱산에 온 새 주인내외가 주점을 차려놓은것을 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약내가 물씬물씬 풍기던 곳에서 음식장사가 제대로 되겠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터가 좋다는 누군가의 소리에 새 주인들은 기어코 롱산을 타고앉아 요란한 주점장사판을 펼쳐놓은것입니다.

아직 식당의 공식간판은 못걸었지만 그래도 영업허가는 따냈는지라 《공정》과 《민생》 등의 광고부터 내걸었다고 합니다.

뚝심을 품고 시작한 일이라 그들내외는 제손으로 음식감들을 사들이기에 분주하고 도마와 곤로앞에서 비지땀도 많이 흘리고있답니다.

더운 료리로는 열탕, 찬료리로는 회를 선보였는데 운수가 좋아 5년간 열탕과 회료리가 대박을 맞는다면 이보다 더 큰 횡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돈과 재물이면 늘그막에 남의 열자식 부럽지 않다는것이 이들 내외의 속구구입니다.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석열이네 부부는 이왕이면 료리사들의 명성까지 떨쳐볼 심산으로 더운 료리에는 《석열탕》, 찬료리에는 《건회》라고 저들의 이름자를 따붙였답니다.

그럼 내외가 열성껏 만든 료리를 좀 들여다볼가요.

우선 석열탕입니다.

새로운 탕이라면 응당 멋진 신선로나 곱돌장그릇에 담겨나올줄 알았는데 주인내외가 좀 구태적인지 조상들이 쓰던 낡은 그릇을 《보수》한것에 담은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긴 그릇이 기본이 아니지요.

헌데 이걸 어떡합니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먹다남긴 음식찌꺼기들을 마구 담은것같기도 하고 다른 음식점의 오물들을 받아 섞은것같기도 한게 대번에 구역질이 꾸역꾸역 올리밉니다.

석열탕의 기본료리감들에서 《정치》는 어떻게나 험하게 칼질을 당했는지 형체도 없는 《망탕》이 되고 《외교》라는것은 원체 선도가 나쁜것을 어디서 헐값으로 구입해왔는지 《구걸탕》이 되고 연약한 《민생》료리감은 《망탕》에 밀리우고 《구걸탕》에 짓눌려 《죽탕》입니다.

《북남관계》는 더욱 험악한 판이라 이런걸 《엉망진창》이라 해야 하지 않을가요.

거기에 고약하기 그지없는 악취까지 코를 찌릅니다.

그러니 광고에 속아 맛을 본 주민들의 반영이 어떻겠습니까.

쏟아지는 불평과 험악한 비난이 대단합니다.

벌써 병원에 실려가 사망선고를 받은 대상도 있다니 더 말해 뭘 하겠습니까.

민간병원에서는 석열탕의 부재료로 쓴 음식감들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머저리로 만든다는 《숭미》라는 쌀로 만든 떡국대에 알레르기부작용을 심하게 일으키는 성분이 섞인 《친일》을 기본료리감들사이에 쏟어넣고 단맛감의 일종인 《독단(당)》을 잔뜩 치고 《내로남불》에서 푹 익혀내는 과정에 갖가지 독이 배들고 고약한 냄새까지 풍기게 된다는것입니다.

한편 주방에 고용된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 낡은 그릇에 매달려 10년정도 밥사발을 비운 축들도 석열탕을 마주하고는 그 냄새와 모양에 인상부터 찡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석열탕은 민중탕이 아니라 윤석열전용 보신탕이라 해야 하지 않을가요.

다음은 건회입니다.

대박을 바라던 석열탕은 물건너갔어도 그래도 안주인이 직접 손을 댄 회료리야 좀 낫겠지요.

《사랑회》는 개점전부터 소문났댔으니 건회야 오죽하겠습니까.

들리는 말이 건회의 기본료리감은 종교, 미신, 관상, 주술, 점따위라는데 조리방법도 입맛에 맞는걸 골라 건성 담아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랍니다.

하여 항간에서는 일명 《건달군회》(략칭 《건회》)라고 한답니다.

그래도 음식맛이야 소문을 듣고 평가할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료리감들이 그리 낯이 설지 않은지라 한저가락 맛을 보니 가공을 전혀 하지 않아 비릿비릿한게 메스껍기 짝이 없답니다. 과거 리력기만에 대한 생신한 《후회》와 《참회》란 꼬물만큼도 없을뿐더러 《교회》의 색소를 뿌려 시뻘겋게 슬쩍 겉발림만을 하였으니 어찌 그냥 속아넘어갈수 있겠습니까.

량주가 다 노래기 회처먹을 비위를 지닌 인간들이라 최근에는 합작품으로 《안방술회》와 《인사청탁회》라는 이색적인 회료리에 식혜의 일종인 여러가지 《특혜》들까지 만들어 석열탕에 곁들여내고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먹기에는 더욱 해로워 생존에 치명적이라는것이 민심의 총체적인 음식평입니다.

지극히 옳은 평가라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롱산주점의 특식들은 소문에 비해 너무도 한심한 불량음식들이다, 보기 스산하고 냄새 또한 역하며 위생학적으로 불결하다, 석열탕이니 건회니 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엄청난 값을 받아내려드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탕이건, 회건 입으로 먹는것은 물론 코로 냄새만 맡아도 치명적인 저 롱산주점의 특식들이란 백성들이 들것이 아니다, 음식아닌 음식을 특식이라 팔아먹으려는 저 롱산주점은 당장 폐업시켜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웨치고있습니다.

그러니 인기도 없고 볼것도 없는 이 불량식품을 제거해버리는 방책은 오직 하나 롱산주점을 한시바삐 폐업시키고 아예 롱산마을에서 추방시키는것뿐이라 하겠습니다.

리충호

서까래보다 먼저 썩은 기둥을 교체해야…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실》기구를 일부 개편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말썽도 많고 그만큼 비난도 많았던 《대통령실》을 개편했다지만 력대 최악의 통치위기에 시달리고있는 정치초년생이 고안해낸 눈가림식의 궁여지책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가 아름차게 걸머진 정치위기중에서 인사참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일각에서는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실》기구개편과 관련하여 통이 큰 인적쇄신, 전면개편대신 인적보강에 그친다면 오만과 불통에 대한 부정적여론이 고조되여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수 없다는 경고도 울려나왔었다.

하지만 남조선민심의 말대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개편도 소규모이고 인사도 《끼리끼리인사》였기때문이다.

그 무슨 《홍보비서관》직만 보아도 《대통령》선거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고 선거이후부터 취임전까지 자기의 대변인노릇을 하였던 측근인물을 올려앉히였다고 한다.

그러니 차례진것이란 《지지률문제는 홍보부족이 아닌데 원인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번 판도 〈윤핵관〉이 짠 인적개편결과 아니겠나.》, 《결국 인적쇄신이 아니라 측근보강》이라는 여론의 뭇매뿐이였다.

보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가 파멸의 나락에서 헤여나보려고 모지름 써본대야 그 식이 장식이며 무엇이 달라질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것과 같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모든 사회악의 근저에는 어리석은 윤석열역도의 무지와 무능이 깔려있다, 서까래교체가 아니라 아예 썩은 기둥을 뽑아버려야 한다는 성토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서 표를 던진것이 후회된다.》, 《윤석열이 측근들만 끼고 놀아댈바에는 차라리 대통령을 그만두는것이 낫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이 이런것이라면 박근혜처럼 탄핵당할수도 있을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좋아한다면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정부는 끝났다. 탄핵추진하라.》…

세상돌아가는 리치도 제대로 모르고 허망한 꿈만 꾸는 윤석열역도에게 기대를 걸것도 없으며 걸어서도 안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대답이다.

고충국

굴종할수록 더욱 오만해진다

요즘 섬나라쪽발이들이 더욱 오만하게 날뛰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본이 패망한 날인 8월 15일을 계기로 수상 기시다가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봉납하고 아래것들도 줄줄이 참배놀음을 벌리였다.

2015년에 진행된 국제관함식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내건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아시아인민들의 비난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섬나라것들은 올해 11월에 진행될 국제관함식에 남조선도 참가하라고 강박하면서 《배려》라고 코대를 세우는가 하면 남조선이 독도에 대한 해양조사를 하는데 대해서도 용납할수 없다느니, 《다께시마는 일본의 고유령토》이므로 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며 을러메고있다.

그런가 하면 《극도로 악화된 관계를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에게 강제징용배상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압을 가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천백배로 사죄하고 배상을 해도 시원치 않을 전대미문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과거죄악에 대한 티끌만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더욱 광분하는 섬나라것들이야말로 뻔뻔스러움과 후안무치, 날강도적행태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추악한 무리들이다.

문제는 섬나라것들이 어떻게 되여 이렇게 더욱 오만하게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일저자세때문이다.

윤석열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섬나라에 《특사단》을 파견하여 《관계개선》을 구걸하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있다느니, 수출규제를 완화해달라느니 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굽석대고있다. 대표적실례로 윤석열역도는 일제가 패망한 날에도 천년숙적을 단죄할 대신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라고 개여올렸다.

거기에 일본은 어떻게 대꾸했는가.

—남조선이 일본전범기업들의 자산을 강제매각하게 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피해가기 위해 노력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지어 섬나라것들은 자기들이 《형님》벌이 된다고 떠벌이며 윤석열역적패당을 대놓고 하대하였지만 역적패당은 항변 한마디 못하고 《관계개선》타령이나 외워댔다. 그야말로 친일굴종이 습벽화되여 배척과 멸시도, 조롱과 야유도 모르는 천치가 되여버린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는 민족적자존심은 둘째치고라도 초보적인 인간의 존엄과 자존심이 꼬물만큼도 없는 속물, 친일역적배들의 가련하고 불쌍하기 이를데없는 비루한 추태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도 안중에 없는 윤석열역적패당을 조선사람명부에서 한시바삐 지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리정현

풍자시

산송장을 부르는 까욱소리

신영철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불쾌한 송장내 곁에서 울리는 까욱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선거공약 시궁창에 내던지고
경제파탄 민생고에 눈감고
공안통치 되살려 철창지옥 만들었으니
민심기만 민심우롱 하늘에 닿게 한
역적중의 천하역적이니
너도나도 지지표 후회하고
곳곳마다 반기들고 나섰네
인간명단 제명되니 숨쉬는 송장꼴
까마귀떼 까욱까욱 제명 다 살았다 알려주네

분계선너머 어디선가 풍겨오네
역겨운 송장내 곁에서 울리는 까욱소리 그칠새없어
웬 일인가 알아보니 바로 그렇지
미국 하내비앞에 꼬리치는 삽살개
동족에겐 악성비루스 들이밀고
북침전쟁 먹장구름 몰아오고
조선반도 핵참화 불러오니
악귀같은 호전광, 대결광이 분명하네
매국노 윤석열역도
역적중의 천하역적이니
8천만 온 겨레 한입되여 단죄하네
인간명단 제명되니 숨쉬는 송장꼴
까마귀떼 까욱까욱 제명 다 살았다 알려주네
송장내 맡는 명물 까마귀들
까욱소리 부르는건 공동묘지뿐
버림받은 역적놈 갈 곳은 오직 한곳뿐이구나

인민의 군대와 군복입은 깡패무리

지금 조선반도의 북과 남 두 군대의 모습은 너무도 판이하다.

공화국에서는 군대가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보위하면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워가는 참다운 인민의 복무자로 찬양받고있지만 남조선군대는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도덕의식이 마멸된 부패타락한 깡패집단으로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감명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자정도 훨씬 넘은 이른새벽에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눈물속에 작별하는 모습들이였다.

이들은 지난 90여일간 수도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싸우고도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부담이라도 줄세라 조용히 귀로에 오른 군의부문의 화선군의들과 그들이 떠난다는것을 알고 급기야 달려나온 인민들이였다.

돌발적인 악성비루스사태가 조성되였던 그 나날에 자기들의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쳐 인민을 지켜준 고마운 군대, 자기들에게 필요되는것은 물과 공기뿐이라고 하면서 인민들의 성의어린 원호품도 받지 않던 그 군인들이 무수한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들만을 약국들에 고이 남겨둔채 떠나가는것이 너무도 아쉬워 인민들은 친혈육처럼 정이 든 군인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만 흘리였다.

공화국에서 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적의 강군, 행복의 창조자들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가 최대의 소비자로 되고있고 인민이 군비와 세금에 울고 나라가 군비충당에 쇠진해지고있다고 아우성치는것이 오늘날 행성의 현실이다.

그러나 공화국군대는 소비하는 군대가 아니라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자는 구호를 들고 창조하는 군대, 복무하는 군대, 희생하는 군대로 되고있다.

인민들이 얼마전 어깨춤을 들썩이며 삶의 깃을 편 송화지구와 경루동의 희한한 새 살림집들도 인민군대가 일떠세웠고 지난 시기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도 인민군대의 무수한 땀방울이 슴배여있다.

지금 이 시각도 인민군 군인들은 화성전역과 온 나라 도처의 주요 건설전구들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기적의 건설신화를 창조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우리 군대》, 《행복의 창조자》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른다.

공화국의 인민군대가 이렇듯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복무하고있을 때 한지맥을 이은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고 그 도덕과 정신이 기형화된 판이한 군대가 살판치고있다.

군대가 주민지대들에 뛰여들어 폭행을 일삼고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는 차를 타고 뺑소니치는 범죄행위가 감행되고있는가 하면 길가던 처녀들을 희롱하며 깡패처럼 놀아대고있다. 또한 군사훈련을 핑계로 방금 모를 낸 밭이건, 이삭이 여물어가는 땅이건 가림없이 장갑차와 땅크로 짓뭉개버려 농민들의 원성도 사고있는 남조선군대이다.

이뿐이 아니다.

쩍하면 주민들에게 무기를 휘두르며 행패질하고 주민을 살해하고는 실수로 란사되였다고 사실을 오도하여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대내에서 또다시 발생한 추악한 성추행사건과 자살사건은 마멸될대로 마멸된 남조선군의 정신도덕적부패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규률과 도덕을 생명으로 하는것이 군대이지만 남조선군은 폭행과 강간 등 범죄행위를 일삼는 군복입은 깡패집단이다.

하사관이 사병에게 개처럼 짖을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그런 비인간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구타와 집단폭행을 가하고 살해까지 하는 만행이 빚어지고있다.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지 못해 군대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남조선의 군인자살자수는 83명으로서 그 전해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에 전시작전지휘권도 떼우고 고용병, 전쟁머슴군이 되여 미국의 썩어빠진 양키식사상문화를 이식받은 남조선군에게서 고상한 정신과 도덕을 기대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다나니 외세가 쥐여준 총으로 해마다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남조선군대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군을 가리켜 《깡패집단》, 《부패한 무리》라고 저주와 규탄을 쏟아내고있으며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고있다.

북과 남의 군대의 판이한 두 모습에는 인민의 복리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펼쳐지는 사회와 인민을 등지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반인민적인 정치, 사대매국정치가 펼쳐지는 썩고 병든 사회의 상반되는 모습이 그대로 비끼여있다.

인민이라는 마를줄 모르는 대하에 근간을 두고있는 공화국군대의 앞에는 필승불패의 일로가 펼쳐져있지만 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부패타락한 남조선군앞에는 자멸의 낭떠러지가 가로놓여있다.

장철수

수기 사회주의조국의 따사로운 품에 안겨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나는 내 안겨사는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것인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주의사회와 절망과 비애가 가득찬 자본주의사회, 광명과 암흑의 두 세계를 다 체험해본 내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행복의 절정에 올라 추억의 페지를 번질 때마다 나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우리 가정이 걸어온 수난에 찬 과거를 돌이켜보군 한다.

나라없던 그 시절 나의 아버지는 징용으로 일본땅 혹가이도에 끌려가 매일과 같이 삶과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었다. 강보리밥으로 끼니를 에우며 오소리굴같은 갱에 기여들어가 등짐으로 탄을 날라내오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중의 고역이였다. 그날 일본감독놈들의 모진 폭행으로 아버지는 한쪽눈까지 잃게 되였다.

이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태여난 나는 축구를 하고싶었지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나와 같이 생계유지도 힘든 집의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룰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축구에 대한 동경심을 누를길 없어 주린 배를 그러안고 일본아이들이 뽈차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하루종일 지켜보군 하였다. 가난한 집살림에 축구공 하나의 값은 너무 엄청난것이여서 차마 사달라고 부모앞에 손을 내밀수도 없었다.

누군가 차다버린 낡은 공을 주었을 때의 심정은 마치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딴것같은 심정이였다. 밤새 터지고 꿰진 곳을 기우고 매일 공다루기훈련을 직심스럽게 하였다. 밤낮없이 맹훈련을 한 결과 일본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공다루기 1 000회수준에 오르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반도인》인 주제에 저들보다 재간이 있다고 트집을 걸며 달려드는 섬나라 망나니들에게서 뭇매를 맞았다. 정말이지 해가 비쳐도 따사로움을 몰랐고 봄꽃이 만발하여도 환희로움을 느낄수 없었던 비참한 이역살이였다.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은 이역땅에서 갖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나에게 새 생활을 안겨준 광명의 길이였다.

조국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는 조국인민들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혈육의 정을 한껏 느끼였다. 주위의 모든것 지어 공기마저 얼음처럼 랭랭한 일본땅에서 살던 나에게 있어서 조국의 현실이 정말 놀라왔다.

맡은 총련사업이 바빠 아들만을 조국으로 먼저 떠나보내면서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홀로 조국에 간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사회주의조국땅에서는 모두가 한집안, 한식솔이란다.》

정말로 그랬다. 조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의 큰 지붕아래서 누구나 한식솔, 친형제로 살고있었다.

어디를 가보아도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생활의 선률로 울려퍼지고 나와 같은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차넘치고있었다.

이역땅에서 천덕꾸러기로 버림받던 나는 마침내 그토록 소원하던 축구를 마음껏 하게 되였다. 일본에서 귀국한 학생이 축구에 남다른 소질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 학교선생님들은 편입한지 3일밖에 안되는 나를 구역적인 축구경기대회에 참가시키였다. 보름후에는 구역청소년체육학교로, 그후에는 평양체육대학(당시)으로…

홀몸으로 조국에 왔지만 나는 언제한번 외로움을 몰랐다. 다심한 손길들이 매일, 매 시각 나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나는 공훈체육인으로 성장하였다. 내가 수십년간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선수후비들을 수많이 키워낼수 있었던것은 조국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의 열의가 활활 타올랐기때문이다.

맑은 공기와도 같고 비옥한 토양과도 같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였기에 불모의 땅에서 재능이 있어도 꽃피울수 없었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어들었던 가슴을 녹이고 참된 삶을 누릴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불평등과 특권이 지배하는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사회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찌기 꿈과 희망의 나래를 꺾이우고 좌절과 절망에 몸부림치고있다.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조차 얻을수 없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인간증오사상이 만연하는 사회, 근로대중에게 빈궁만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보람넘친 생활, 긍지높은 삶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시련의 눈보라속에서도 열과 정이 넘치는 따스한 인민의 집이기에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의 노래가 더 뜨겁게 울리고있는것 아니랴.

—덕과 정으로 따뜻한 우리식 사회주의야말로 영원한 행복의 요람이다.

이것은 내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려오면서 체득한 진리의 웨침이다.

만경대구역 갈림길2동
차승진

《복받은 삶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부럽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리상사회라고 하면서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단장은 종합적인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류경치과병원을 돌아보고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이런 최상급의 병원에 돈많은 사람들이나 올수 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지구상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질수 있다.》

한 재미동포는 《내가 본 평양》이라는 글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북에 있는 기간 나는 단한번도 서방에서 초를 다투며 일어나는 살인, 강간, 강탈과 같은 범죄행위는 물론 그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더우기 서방에서 매일이다싶이 일어나는 그 무슨 시위나 집회는 물론 반국가테로행위가 있었다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였다. 참으로 청신하고 정돈된 사회라는 감각이 나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당히 기니스기록집에 올라야 할 특이한 정치적안정을 이룬 나라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도 《조선에는 집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로숙자도 없으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없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울며 고독하게 지내는 늙은이나 고아들도 없다. 한마디로 조선에는 불행한 사람이란 없다. 이것이 바로 서방세계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식사회주의의 참모습이다.》라고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또 다른 한 외국인도 공화국을 방문하여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속에 행복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고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인민의 지상천국이다. 죽어서 천당에 갈것이 아니라 현세의 지상천국인 조선에서 살고싶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독자문답 재카나다동포 김유라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떤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는가

공화국에서는 전반적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유급휴가, 정휴양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각종 보조금 및 년금지불제를 비롯한 우월한 사회주의적시책들이 널리 실시되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제에 의해 출생한 어린이 한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보육교양비와 교육비, 전반적무상치료제에 의해 인구 한사람이 받는 국가적혜택은 실로 막대한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식량공급과 연료, 난방, 전기보장 등 인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조건들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 국가가 많은 품을 들여 지은 살림집들을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주고있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인민적시책들은 사회문화시책비에 의해 재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국가는 국가예산가운데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몫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에게 현금 및 현물지불에 의한 방조를 주고있다.

특히 공화국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키우는 어머니들과 쌍둥이, 세쌍둥이를 2번이상 낳아키우는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특별보조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를 데려다 부양하는 부양자들에게도 매월 특별보조금을 주고있다.

그리고 90살이상의 장수자들에게는 장수자보조금을 주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르는 곳마다의 경치좋은 명승지와 온천, 약수터 등에 인민을 위한 정양소와 휴양소들을 건설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휴식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공화국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예산지출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과 함께 사회문화시책에 대한 지출을 체계적으로 늘이고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근로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적혜택을 받게 된다.

이처럼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로부터 공부하고 병치료하는 모든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기본시책으로 하고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고려의학이 제일이다

우리 민족이 창조한 유산들가운데는 민족고유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도 있다. 우리 조국에서는 오랜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고려의학이 민족의 귀중한 유산으로 적극 장려되고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였다. 병을 고쳐보려 고가약들도 써보고 병원들도 많이 찾아다녔지만 그때뿐이고 차도가 없어 아예 포기했었다.

하지만 그 병을 조국에 와서 깨끗이 털어버릴줄 어찌 알았겠는가.

몇해전 조국에서는 내가 오래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고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었다.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려치료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고려의학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있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조국의 고려의학발전수준을 직접 체험할수 있었다.

조국에서 고려의학이 얼마나 장려되고있는가 하는것은 그 어디에 가나 훌륭한 고려의료봉사설비들이 꾸려져있고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구역), 리의 병원은 물론 공장, 기업소의 산업병원과 진료소들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고려의학봉사체계가 세워져있을뿐 아니라 고려의학의 과학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것을 봐도 잘 알수 있었다.

나는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 새로 개발하였다는 3대고려의학고전의 하나인 《향약집성방》열람프로그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곳 의료일군들은 민족의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향약집성방》에 기초하여 치료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람을 개발하는데 달라붙었는데 《향약집성방》의 959개 고려의학적병증에 해당한 1만 3 300여개의 치료법들을 병증, 고려약처방, 침뜸치료, 민간료법, 식사료법, 침혈 등 필요한 항목에 따라 검색열람할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향약집성방》의 열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국내의 고려약자원에 의거하여 효능높은 치료법들과 건강약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발할수 있게 하는 이 프로그람이 제28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국에서 민족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이 적극 장려되고있기에 나와 같은 해외동포들도 조국에 와서 병을 고칠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말이 난김에 내가 입원해있던 나날에 있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내가 들었던 호실의 바로 옆호실에 한 녀성환자가 들어있었다. 이곳에 입원할 당시 그 녀성은 혈압이 오르고 심장부위의 아픔이 더해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을 때 숨이 차서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혈압내림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을 썼으나 호전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얼마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곳 의료일군들의 처방에 따라 고려약을 먹으면서 침을 맞으니 입원전에 비해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숨차기 등의 증상들이 없어졌다는것이였다. 그 녀성은 이제는 심장부위아픔이 가뭇없이 사라졌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곳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았다.

그들중에는 입원한지 한달만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 호전되였다는 50대의 녀성도 있었고 허리를 심하게 다쳐 움직일수 없는 상태에서 들어왔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 없이도 걸을수 있게 되였다는 30대 남성도 있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환자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고려약의 처방과 치료를 위해 바쳐왔을 이곳 의료일군들의 수고가 깊이 헤아려졌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가지 원인으로 더욱 많아지고있는 질병들을 고려의학적방법으로 치료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지혜와 정성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의료일군들을 보면서 조국에서의 고려의학발전의 밝은 앞날을 내다볼수 있었다.

내가 오래동안 고생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조국에서 깨끗이 털어버리고 돌아오자 동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행운아라고 부러워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군 한다.

《나의 운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당한 내 조국이 있고 조국에서 적극 장려하는 고려의학이 있었기에 병을 고칠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의 고려의학이 제일이다.》

재중동포 한창수

고려의학종합병원

《송도3절》의 하나로 유명한

박연폭포

박연폭포란 바가지와 같이 생긴 담소에 떨어져내리는 폭포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유명한 박연폭포를 두고 옛사람들은 신선들이 살만한 아름다운 폭포라고 하여 선폭이라고도 불렀다.

박연폭포는 창끝을 묶어세운듯 뾰족한 봉우리들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하늘높이 치솟고있는 천마산과 성거산사이를 흐르는 여러 골짜기의 물들이 기암절벽사이를 헤치고 내려오면서 합쳐지고 못을 이루었다가 절벽아래로 떨어진다.

박연폭포우에는 대흥산성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큰못(큰 바위에 바가지모양으로 패인 곳. 직경 8m)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박연이다.

박연의 푸른 물가운데에는 평평한 모양을 이룬 섬바위가 솟아있다.

바로 이 박연의 물이 북쪽으로 열린 통로로 넘쳐흘러 37m의 높이에서 장쾌하게 쏟아지면서 박연폭포를 이룬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직경 40m의 고모담이 있다.

고모담에서 올려다보는 박연폭포의 모습은 마치 은하수가 떨어지는듯하고 내려쏟는 물기둥과 우뢰와 같은 요란한 물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고 산이 무너지는것같다.

그런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많은 시인들이 이곳을 찾아 폭포의 아름다움과 장쾌함을 시와 노래에 담았는데 조선봉건왕조시기 녀류시인 황진이도 박연폭포를 자랑하는 시를 남겼다.

박연폭포는 그 웅장한 모습뿐 아니라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싼 층암절벽에 안기여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우거진 록음, 가을에는 단풍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다.

고모담의 서쪽기슭에는 둥그런 큰 바위가 물에 잠기여 웃부분을 드러내고있는데 이것이 바로 룡바위이다.

룡바위는 수십명이 앉을만하게 넓으며 바위우에는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은하 락구천》이라는 7언절구가 능란한 초서체로 새겨져있다.

그 운을 풀이해보면 《흐르는 물이 삼천자나 되는 곳에서 곧추 떨어지니 아마도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것이 아닌가 의심되노라》로 된다.

개성의 력사를 기록한 《중경지》에는 이 글이 랑선군 리오의 글씨라고 하고있으나 개성지방에서 전해오는 구전에는 《송도3절》의 하나로 이름높던 황진이가 머리를 감고 젖은 머리태로 쓴 글씨라고도 한다.

고모담의 동쪽언덕에는 범사정이라는 정자가 아담하게 서있다.

개성지방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에 있는 《박연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범사정으로 련실 감돌아흐른다》라는 구절은 바로 고모담과 범사정의 조화된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것이다.

범사정에서 대흥산성의 북문에 이르는 골짜기도 기묘한 바위와 구슬같이 흘러내리는 물, 무성한 나무로 하여 개성의 금강이라고 불리운다.

이렇듯 박연폭포는 절승경개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2021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소장 김혁

공훈과학자이며 박사 부교수인 김혁은 금속재료부문의 권위있는 과학자이다.

그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에는 화력타빈날개의 국산화라는 무거운 임무를 스스로 걸머지고 타빈날개재료를 기어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온 애국의 마음이 진하게 깃들어있다.

사실 그가 불수강수력타빈날개의 국산화에 이어 화력타빈날개의 국산화를 위한 개척의 길에 또다시 뛰여들때에도 오늘과 같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없었다.

보통의 의지와 각오로는 넘기 힘든 고비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패친것은 평범한 로동자의 아들을 중요과학연구단위의 책임일군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이였고 자체의 지혜와 기술로 기어이 화력타빈날개를 국산화하려는 주체조선의 과학자로서의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이였다.

하기에 그는 실패의 순간에도 동요를 몰랐으며 화력타빈날개시험장에도 주저없이 들어설수 있었다.

높은 실력과 강한 원칙성, 뜨거운 인정미로 과학자들을 이끄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근년간 흑색금속연구소에서는 우리 식의 수직식산소열법용광로, 크롬을 쓰지 않는 기계제작용강과 베아링강, 각종 규격의 내열강을 비롯한 큼직큼직한 연구도입성과들을 내놓고있다.

화력타빈날개의 국산화실현과 관련한 대상과제수행에서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것으로 하여 그는 2021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였다.

본사기자

건강상식

콩국의 건강증진효과

—신체를 튼튼하게 한다.

콩국은 단백질과 지방, 당질, 린, 철, 칼시움, 비타민 등을 풍부히 함유하고있으므로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데 매우 좋다.

—당뇨병을 방지한다.

많은 량의 섬유소가 들어있는 콩국은 당의 과도한 흡수를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고혈압을 예방치료한다.

콩국에 들어있는 스테롤과 칼리움, 마그네시움이 소금속의 나트리움에 저항하므로 콩국을 자주 마시면 고혈압을 예방치료할수 있다.

—관상동맥성심장병을 방지한다.

콩국에 들어있는 스테롤과 칼리움, 마그네시움, 칼시움은 심장의 피줄과 심근에 긍정적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함량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매일 한사발정도의 콩국을 마시면 관상동맥성심장병의 재발을 50% 낮출수 있다.

—뇌경색과 뇌출혈을 방지한다.

콩국에 들어있는 마그네시움과 칼시움은 뇌피줄속의 콜레스테롤함량을 줄이고 피흐름을 개선하므로 뇌경색과 뇌출혈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콩국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의 죽는률을 낮추어 뇌의 기능을 높인다.

—암을 방지한다.

콩국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셀렌, 몰리브덴 등은 모두 강한 암억제, 암치료작용을 한다.

—기관지염을 예방한다.

콩국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기관지염의 발작을 줄인다.

—로화를 방지한다.

콩국에 들어있는 셀렌과 비타민E, C는 항산화기능이 높으며 특히 뇌세포에 대한 항산화작용이 뛰여나다.

본사기자

녀성들이 즐겨 찾는 기능성식품들

최근 공화국의 오일건강음료종합공장에서 개발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기능성식품들이 녀성들의 피부미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 개발생산하고있는 《콜라겐》(녀성영양제)은 녀성들에게 젊음을 되찾아주는것으로 하여 인기가 대단하다.

콜라겐 그자체는 곧 피부의 탄성과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이 로화되면 콜라겐합성량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피부의 탄성이 없어지며 주름이 생기게 된다.

공장에서 개발한 《콜라겐》은 녀성들의 미용을 위한 1일영양보충제로서 물고기의 순수한 콜라겐과 생물칼시움, 각종 비타민을 비롯한 효능높은 항산화물질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놀라운 피부미용효과를 나타내며 동시에 뼈와 힘줄을 튼튼하게 해주어 젊음을 되찾아주는 기능성제품이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복합젖산균가루(녀성용)도 녀성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복합젖산균가루는 녀성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익생균들과 함께 심장혈관계통강화, 혈액순환개선, 암예방, 독풀이작용, 방사선피해방지에 좋은 기능성식품이다.

공장에서 개발생산하고있는 검은쌀식초는 료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이 즐겨 찾는 기능성식품의 하나이다.

이 검은쌀식초는 독특한 향기와 맛, 색으로 음식의 진미를 돋구어주는 랭료리용조미료이다.

오일건강음료종합공장에서 개발생산되고있는 이 기능성제품들은 평양제1백화점, 광복지구상업중심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러 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는데 녀성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경성모래온천료법

경성모래온천료법은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고려의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비물질문화유산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전에 알려진 경성모래온천은 메타규산염과 여러 광물질들을 주요성분으로 하고있는 라돈샘으로서 척추질환, 관절염, 외상 및 수술후유증, 부인병, 신경계통질병 등 여러가지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한다.

이 온천은 각지에 있는 라돈샘들가운데서도 라돈함량이 가장 높은것으로 하여 치료효과가 특별히 좋다.

경성모래온천료법에는 보통 40~45℃의 온천물에 온몸 또는 일정한 부분만을 잠그고 한번에 5~10분씩 하루 10번정도 하는 미온욕치료, 모래찜질과 미온욕치료를 결합하여 진행하는 모래온천욕치료, 온천물속에서 여러가지 견인치료기를 리용하는 견인욕치료 등의 외용치료와 음천치료, 장세척치료, 흡입치료를 비롯한 내용치료가 있다.

치료기일은 보통 30~40일이다.

땅속 60m깊이에서 샘솟는 온천의 물온도는 62~64℃이다.

오늘 경성모래온천은 훌륭한 의료봉사기지로 전변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9월의 절기와 민속

9월의 절기에는 백로와 추분이 있다.

백로란 맑은 이슬이 내리고 가을기운이 스며드는 때라는 뜻이다.

추분은 여름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가을이 된다는 뜻으로서 이날 낮과 밤의 길이는 거의 같아지며 그후부터 밤보다 낮이 점점 짧아진다.

백로때에 이르면 산과 들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머루, 다래, 돌배 등 산열매들이 익기 시작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 조를 비롯한 농작물들에 대한 가을과 밀보리씨뿌리기를 하였으며 일부 지방들에서는 목화따기도 하였다.

산간지대에서는 약초캐기와 산열매따기도 하였다.

추분때에 이르면 논에서는 벼가을을 하였고 밭에서는 콩을 비롯한 밭곡식을 거두어들이였으며 밀보리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이 시기 중부지대에서는 백로에 시작한 조가을을 끝내고 벼가을을 시작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왔으며 산간지대들에서는 원그루로 많이 심던 늦감자를 수확하였다.

올해의 백로는 9월 8일이며 추분은 9월 23일이다.

본사기자

웃음

두 벌 인 사

옛날 한 선비가 세도가 당당한 재상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집에 갔다.

방에 들어서면서 그림을 그리고있는 재상에게 절을 하였는데 그는 눈 한번 돌리지 않고 그림만 그렸다.

한동안 서서 기다리던 선비는 더 서있기가 어색해서 또 한번 절을 하였다.

그러자 재상은 붓을 내던지며 대노해서 《어디 산 사람에게 두번 절하는 법이 있느냐?》라고 소리쳤다.

그 추상같은 질책에 여느 사람 같으면 넋을 잃고말았겠지만 선비는 눈섭 하나 까딱 안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먼저 한 절은 문안인사이고 이번에 한 절은 되돌아가자고 한 작별인사이옵니다.》

태연자약한 그의 담과 례의에 감복한 재상은 크게 웃으며 가까이 불렀다.

사 화

마지막발명품 (8)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장영실이 지닌 재능의 그릇은 한시대의 과학기술을 다 담을만큼 크고 넓었다.

고려 금속활자의 전통을 이어 세종 갑인년에 만들어낸 20만자의 《갑인자》제작에도 그의 노력이 깃들어있고 자동물시계 《자격루》,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 천문시계 《옥루》, 휴대용해시계 《현구일구》와 《천평일구》, 우리 나라 최초의 공중시계로서 종묘 남쪽거리와 혜정교옆에 설치한 《앙부일구》, 세계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 하천수위를 재는 《량수표》 … 무엇이나 다 그에 의하여 이룩된것들이였다.

임금에게 충성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장영실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말로 충성한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한생을 바치고 성실한 노력과 재능을 다 바쳤다.

그에게 약간한 실수는 있으되 죄는 없다.

더구나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죄명은 천만부당하다. 헌데 이를 리해할 신하가 이 대궐안에 과연 몇사람이나 있는가.

조정은 다른 사람의 충성스럽지 못함에 눈을 밝히는것으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려는 거짓《충신》들만 가득차있다.

이 나라안에는 장영실의 무죄를 증명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종은 의금부의 계언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든채 긴 한숨을 내쉬였다.

임금의 권력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 나라와 조정을 일으켜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봉건유교도덕과 그 정치리념이였다.

임금의 룡상도 그밑에 놓여있고 임금자신도 그것의 지배를 받고있는것이다.

그런 까닭에 세종이라는 임금이 어느 정도의 리해를 가진다 하여 람여를 허술히 만들어 신성한 왕권에 조금이나마 손상을 준 장영실의 소행이 달리 평가될수는 없었다.

세종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천천히 붓을 놀려 장영실의 죄는 2등급을 낮추어 형장 80도로 감형하며 임효돈과 최효남의 죄는 1등급을 낮추어 형장 70도로 감형하라는 글을 써서 도승지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되여 영실은 억울한 곤장 80대를 맞고 불경죄로 대호군의 벼슬에서 파면당하였다.

그는 대궐을 떠나기 전날밤 홀로 서운관 앞뜰을 거닐었다.

5월이라 궁담밑에 피였던 복숭아꽃도 다 지였다.

영실이 역시 궁담안에 갇혀 덧없는 20년세월을 흘러보내며 청춘을 잃어버렸다.

기나긴 세월이 가져다준것은 과연 무엇이였더냐.

무수한 발명품들이 여기 이 대궐안과 한양장안 곳곳에 남아있다.

그 정교한 기구들은 장영실이 고달픈 한생에 이루어놓은 열매로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사랑과 바꾼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가 충성을 다 바친 대가로 고작해야 장형 20대를 감형해주었을뿐이다.

친히 거룩한 붓을 들어 20년세월의 피타는 노력과 꽃다운 사랑을 희생시켜 이룩한 과학기술적발명들을 장형 20대로 계산하여버리였다.

(아, 상감님. 원통하고 억울하오이다.)

영실은 앞을 막아선 궁담을 주먹으로 세차게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저는 한생을 상감님께 바쳤건만 어찌하여 오늘 이 대궐에서 쫓겨나게 되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옥섬이는 무슨 죄가 있어 홀로 애를 태우다가 불쌍히 숨을 거두었습니까. 그것이 못난 저의탓이라면 저는 과연 누구때문에 이 한양성대궐로 들어왔으며 또 오늘은 왜 성밖으로 쫓겨가야 하옵니까.)

영실은 문득 옥섬의 죽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내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있던 《무엇때문에, 누구때문에?》라는 그 무서운 운명의 물음에 대답을 얻은것같았다.

임금은 임금일뿐 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였다.

장영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것은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였지 불쌍한 관노청년을 동정해서도 아니였고 그의 뛰여난 재능을 귀중히 여겨서도 아니였다.

임금과 그 《충실한》 신하들은 봉건왕권의 영상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던진다고 인정될 때는 인간의 운명이며 명예며 그 특기할만한 기술까지도 서슴없이 헌신짝처럼 집어던지는것이였다.

그런즉 영실은 임금의 은혜를 입어 대궐에 들어왔고 이번에도 임금의 은혜로 쫓겨나는셈이였다.

이제는 일밖에 모르던 영실도 임금에게 아무러한 기대도 가지지 않았으며 이 대궐에 티끌만한 미련도 두지 않았다.

가슴이 찢기는듯 아프고 억울하기는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서운한감이 전혀 없었다.

장영실은 궁담을 두드릴 때 피가 터진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나서 천천히 서운관뜰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희미한 초생달이 서쪽하늘에 걸려있었다.

좀더 앞으로 나아가니 하얀 화강석받침대우에 놓여있는 측우기가 은은한 빛을 뿌리며 안겨왔다.

그리로 천천히 다가간 영실은 반들거리는 측우기의 몸체를 어루만지면서 《아, 네가 나의 마지막창안품이로구나!》 하고 중얼거리였다.

측우기몸체안에서는 찬이슬이 눈물인양 흘러내리고있었다.

《너도 울고있구나. 너도 울고 나도 울고 하늘도 우는구나!》

그는 사랑하는 자식을 보고 말하듯이 정답게 속삭였다.

《나는 가지만 너는 영원히 남아 이 나라 불쌍한 농부들에게 풍년을 가르쳐주렴. 그걸 믿기에 나는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난다. 잘 있거라.》

어느덧 동녘이 희붐히 밝아왔다.

장영실은 자그마한 괴나리보짐을 메고 대궐남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는 어제 저녁에 이미 석별의 정을 나누었으니 더는 만나볼 사람도 없었다.

그는 남문이 열리자 첫사람으로 성밖에 나섰다.

새벽안개를 헤치며 밭갈이를 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멀리로 바라보이였다.

해뜨기전 봄하늘에서는 노고지리가 귀따갑게 우짖었다.

장영실은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멀리 동쪽산마루에서 아침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끝)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